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지하1관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5월 9일 수요일 (음 3월 24일)

제204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송하진 도지사는 8일 호남지역 가야유적 가운데 첫 번째로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제542호)로 지정된 남원 두락리·유곡리 가야고분군 및 월산리 가야고분군 유적 현장을 방문하여 정비 추진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활동을 펼쳤다.

전북가야 실체규명 속도 올린다

송하진 지사 “전북자존의 시대 여는 축으로 삼아야”

호남 첫 유적 남원 두락리 일대 점검·발진 구체화 모색

전북도가 전북자존의 시대를 활짝 열기 위한 일환의 하나로 전북가야 문화의 발굴과 유적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는 특히 문화재청을 비롯해 도내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전북가야 유적이 경상가야 고분군과 함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수 있게 우선 대상 유적을 집중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8일 호남지역 가야 유적 가운데 첫 번째로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제542호)로 지정(3월 28일)된 남원 두락리와 유곡리 가야고분군 유적 현장을 방문, 정비 추진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활동을 펼쳤다.

송 지사는 정부 국정과제로 ‘가야 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가 채택된 만큼 전북가야의 발굴과 유적정비 상황을 진행하면서 국비확보 등 앞으로

나갈 방향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전북가야유적이 동부권 7개 시군에 폭넓게 분포되어 있는 만큼, 전북가야의 정체성과 실체규명을 위해 유적발굴과 조사, 연구 등에 좀더 속도를 내어 추진해야 한다.”며 “가야 유적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경상가야 지자체를 비롯해 문화재청과 협의해 전북가야도 공동 등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관계관들에게 주문했다.

또한, “전북가야 유적 집중 발굴조사로 고증을 통해 전북가야의 실체를 빠른 시일내에 규명하고 정치권 및 시군과 공조해 국가예산에 확보에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전북 가야문화 유적 정비와 활용사업을 병행 추진하는 것은 전북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전북

자존의 시대를 여는 한 축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이날 남원 가야유적 현장 방문에 앞서 전북가야 출토 유물을 전시하고 있는 국립 전주박물관 ‘전북에서 만나는 가야 이야기’ 특별전(8월 26일까지 전시)을 관람하면서 전북 가야문화의 역사성을 재확인했다.

월산리 고분군 유적 현장도 방문해 발굴조사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는 “이 곳에서 출토된 갑옷, 철제 초두, 청자계수호 등은 이 일대에 독자적인 강력한 힘을 가진 가야 세력이 존재하였을 짐작케 한다.”며 “고증을 위한 전문가들의 노력에 감사하다.”는 말을 직접 전했다.

두락리, 유곡리 가야 고분군은 남원시 인월면 성내리 35-4의, 유곡리 746-1의 문화재 구역 40필지 98,225㎡로 이는 호남지역 최초의 가야유적 지정 사례이며, 전북가야 유적의 새로운 지평을 연 사적으로 5~6세기 고대사 및 고대문화 연구에도 중요한 유적으로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높게 평가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와 남원시는 두락리 유곡리 고분군이 사적으로 지정된 이후 경상가야 고분군(김해, 고령, 함안)과 세계유산 공동등재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도와 시는 빠른 시일 내에 토지매입, 발굴조사, 고분군 정비, 전시관 및 편의시설을 조성 등을 위해 사업비 240억원(국비 168, 도비 36, 시비36)을 투입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문화재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동시에 군산대 가야문화연구소 등 도내 전문가 그룹과도 의견을 수렴해 나가고 있다.

도는 현재 도내 동부권을 중심으로 690개소(고분 448기, 제철유적 129, 봉수68, 산성45)의 가야 유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올해의 경우 그동안 투입했던 예산에 비해 2배가 넘는 93억의 예산을 확보, 이들 유적 중 주요 유적에 대한 실체규명을 위한 발굴 조사를 한창 진행하고 있다.

/김진성기자

성능 우수 반투명 태양전지 개발

(페로브스카이트)

전북대 한운봉 교수 연구팀... ‘나노 에너지’에 게재

전북대학교 한운봉 교수(공대 화학공학부·사진) 연구팀이 안정적이고 전기적 특성까지 매우 우수한 반투명 페로브스카이트(Peroovskite) 태양전지를 개발, 에너지 분야 세계적인 학술지인 ‘나노 에너지’ 온라인 판에 게재되며 세계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Nano Energy 27권)를 처음 개발한 것을 비롯해 나노복합소재와 계면공학 기술을 적용하여 대기 중에서 제조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도 지난해 발표했다.(나노 에너지 40권, 2017년 10월호)

또한 그래핀 기반 나노소재의 제조와 태양전지 응용에 관한 연구 결과도 발표한 바 있다.(나노 에너지 47권, 2018년 5월호)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나노복합소재와 계면공학 기술을 적용하고, 활성층에 불연속 아일랜드(islands) 구조를 도입하여 광투과율을 조절함으로써 반투명 태양전지를 만드는 기술이다.

모든 공정을 대기 중에서 진행하여 광투과율이 27%인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제조한 결과, 270일 이상 지나도 태양전지 성능이 93% 이상 유지되는 성과를 얻었다.

특히 이번 연구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실용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건물통합형 태양광발전(BIPV)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연구로 의미를 갖는다.

/기동취재반

청소년 힙합문화 수요 충족

전주시, B-boy 전용공간 조성

이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야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전주시가 비보이(b-boying)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청소년 문화의 중심지가 되기 위한 본격적인 시도에 나선다. 전주시는 b-boy들의 전용 연습공간을 조성하고, 청소년들이 비보잉과 디제잉 등 힙합문화를 배울 수 있는 문화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시는 현재 전주시 홍보대사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세계적인 비보이 그룹 ‘리스트포원’이 결성된 장소이자 전국 규모의 전주 b-boy

그랑프리 행사를 주관해오고 있는 전주청소년문화의집 3층 강당을 전면 리모델링해 b-boy 전용 연습공간으로 제공키로 했다.

또한, 시는 리모델링이 완료된 비보이 전용 연습공간에서 비보이 전문가 양성과 청소년 문화 저변 확대하기 위한 비보이전문 문화학교도 운영, 비보이를 전주를 대표하는 청소년 문화로 육성할 계획이다.

비보이전문 문화학교는 우선 비보이 관련 과정이 운영될 예정으로, 향후 청소년들의 요구에 맞춰 디제잉 등 종합적인 청소년 힙합 문화학교로 만들어갈 예정이다.

/기동취재반

동학농민혁명 124주년 기념

제51회 황도현 동학농민혁명 기념제

2018.5.12(토)-13(일)

황도현 전적지 및 정읍시 일원

5월 11일은 황도현 전승일로 사전행사가 진행됩니다

주최: 명주시 | 주관: (사)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www.황도현.com

노선택과 소울소스

5월 11일(금)		
시간	행사명	장소
11:00	124주년 동학혁명호헌전승기념식(천도교)	기념탑
5월 12일(토)		
시간	행사명	장소
10:00	무명동학농민군위령제	고부면 신송리
11:00	정읍 무형문화재 발표회1 - 판소리	야외특설무대
13:30	정읍 무형문화재 발표회2 - 정읍농악	야외특설무대
14:00	문화예술공연 '여인 1894'	교육관
18:30	제51회 황도현동학농민혁명기념제 기념식	야외특설무대
	음악과 함께 떠나는 혁명이야기	
20:30	동학농민혁명 신만민공동회의	야외특설무대
5월 13일(일)		
시간	행사명	장소
09:00	제21회 황도현 전국농악경연대회	사발통문광장
10:00	온 가족이 함께하는 전국역사퀴즈대회	야외특설무대
11:00	구민사 갑오선열 제례 및 위패봉안례	구민사
13:30	제12회 황도현전국청소년드론대회 결선	교육관
	짚기발발페스티벌	야외특설무대
16:00	2018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특설무대

● 상설프로그램

- 신말목장터(체험 먹거리, 휴식공간)
- 장태굴리기, 죽봉전, 황도현생생기, 황도복제현, 동학OX퀴즈 등

● 전시프로그램

- 기획전시 '동학농민혁명으로 꿈꾸는 통일 이야기'
- 기념관 특별전시 '서양인의 시선으로 본 동학농민혁명'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취소/변경될 수 있습니다.